

## 고요함 속의 움직임 — 정 중 동(靜中動)

화가들의 그림은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석 되어 질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그림과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그림에 대해 어떤 그림이 더 훌륭하고 혹은 어떤 그림이 더 열등하다고 결론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각각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그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시적인 것에 더 회화적 무게를 두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사실주의나 인상파 풍의 그림들을 따르는 작가들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이와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다.

마음으로 보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가시적인 형태나 색채보다 그 대상과 형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개념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들,

소위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언어를 무기로 한 그림들이 여기에 포함 될 것이다.



2000

여기 혼하지 않은 그러나 아주 낯설지 않은 몇 개의 필묵으로 완성된 그림이 있다.

그 필선 들은 어떤 질서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스러운 붓질로 지나가 그윽한 풍경이 되는 예사롭지 않은 풍경이다.

물이 스며들어가 한없이 뭉어져 버려 이제 그 흔적으로만 남아 무엇인가 알 수 없는이미지. 그러나 그 이미지들은 어떤 숨겨진 형상을 강력하게 연상 시킨다. 박 다원의 최근 작품들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다. 그는 한동안 사물의 표현과 조형성에 보다 많은 흥미를 보여왔다.

그러한 그의 작업세계를 나는 서정적 풍경에서 서정적 추상으로의 이행으로 해석했고, 오랜 사색과 사유를 통한 동양적 예술세계의 새로운 면들을 읽어 낼 수 있었다.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단숨에 그려낸 듯 순발력 있는 필치, 정돈된 붓질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과 간결함에 나는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 자신의 예술적 열정과 끼를 끊임없이 되돌아 보면서 다소 화려하고 정적이며 시적인 풍경들,서정적 이미지로 충실했던 그의 그림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보다 간결하고 생략된 언어들로 가득한 고요한 세계들을 만나고 있다.

거기에는 세련되고 일필휘지로 내려쳐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의 번득이는 감성도 보게 되고 내재적 운율에 의해서 시 같이 자유로운 유희에서 탄생된 생동감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에게 보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지 않다. 대신 그는 우리들에게 극도로 절제된 풍경을 보여주면서 상상하거나 생각 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림을 볼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운갖 기치(Kitsch)로 가득한 무절제한 풍경의 이미지에서 시각적인 것에 대한 성찰이라도 하듯이 그의 그림은 매우 고요하다.



2000

그가 겨우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농담이 성공적으로 흩어져 화면전체의 공간을 적절하게 지배하고 여백을 충실하게 구사하는 정도다.

그의 공간은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놓여진 공간이 아니다. 긴장감 있게 속도감이 살아남는 그런 공간이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그 적요함이 극에 달아 견잡을 수 없이 양극적으로 열려져 있다. 그런 그는 예술을 유희로 정의한다.

삶의 유희, 그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인간이 즐기고 유희하는 그렇게 탄생된 인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본적인 회화의 형식과 문법을 파괴 해가면서 보여주는 그의 그림 없는 필법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지만 신선하게 숨쉬게도 한다.



2000

특히 최근의 화면들은 간결하기 그지없고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아한 모노톤의 색채가 그의 회화에 큰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드로잉처럼 미완의 그림처럼 보이는 추상화 작품들, 지금 그가 보여주는 회화의 세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육조 시대부터 우주를 통합하는 단색조의 기법과 정신의 담백함을 그려 낸다.

형식에 있어서도 그의 근작들은 몇 가지의 회화적 요소를 가지고 대상을 묘사해 내거나 담아내는 독특한 형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일찍이 동양 북송시대의 예술이론가인 곽희(郭熙)와 소식(蘇軾)은 화가가 어떻게 대상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주목한 바처럼 동양적 예술사상에 근접해 있다.

소식은 성죽재흥(成竹在胸) 과 신여즉화라는 명제를 예술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가가 운필하기 전에, 즉 가슴속에 반듯이 완고하고 청서한 심미의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화가가 대나무를 그리려면 반드시 가슴속에 대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집필하고 숙시하여야 대나무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박 다원의 회화는 그러한 경계에 그의 그림을 놓아 두고 있는 듯 하다.



2000

스스로 지은 서언에서 그는 말한다.

생명의 잉태 로움이게 하는 것

리듬의 부활과 자유로운 놀이의 유희

경계의 경계 없음이 되게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흐르게 하라

무엇인가 되게 하는 것에

매이지 마라

그가 자신의 예술세계를 사색과 자유, 그 놀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의 회화는 한없이 조용하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살아온 구도자적인 그러면서도 예인의 길로 얼룩진 그 양면성을 본다.

고요함 속의 움직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림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박 다원이 풀어놓은 사색 속에서 그림을 읽어내고 생각하게 하는 그림을 만난다.

이러한 만남이 그림 읽기의 행운이 아닌가?

2001.3 평론 김종근

